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5개 시군 이통장연합회와 협력 강화

✎ 박성민 기자 | Ⓞ 승인 2026.04.29 23:12

보령고용센터서 간담회 열고 고용·노동 정책 안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지역 주민 접점에 있는 이통장연합회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사진=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충남=에이티엔뉴스) 박성민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지역 주민 접점에 있는 이통장연합회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보령지청은 29일 보령고용센터에서 보령시 등 관내 5개 시군 이통장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행정 주요 사업과 제도 개선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 조직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노동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령지청은 고용센터 업무를 비롯해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분야별 주요 정책을 설명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했다.

보령고용센터는 지역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구인기업과 연결하는 '청년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주요 사업으로 소개됐다.

지역협력과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노동기준조사·감독과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산재예방감독과는 지붕·태양광 공사와 축산농가 등 소규모 현장의 추락·질식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보령지청과 이통장연합회는 앞으로 각 지회별 이장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과 일반 구직자 발굴,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 전달 체계를 강화해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주홍 지청장은 "산업안전과 청년 취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문제 등이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며 "행정과 주민을 잇는 이통장연합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고용 노동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본부, 현장 밀착형 재해 예방 활동 확대

✎ 박성원 기자 | ⌚ 승인 2026.04.30 12:34

보령·서천·청양·부여·홍성 이통장연합회와 협력 논의
축사 개보수·태양광 공사 현장 위험요인 공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본부가 29일 보령·서천·청양·부여·홍성 지역 이통장연합회 지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본부가 지역 이통장과 협력해 축산농가 및 태양광 공사 현장의 추락·질식 재해 예방에 나선다.

양 기관은 29일 보령·서천·청양·부여·홍성 지역 이통장연합회 지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축사 개보수와 지붕·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추락 및 밀폐공간 질식사
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이통장을 중심으로 현장 위험요인을 신속히
공유하고 안전수칙을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안전보건공단은 앞으로 축산농가 및 관련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지도와 안전 컨설팅을 실시할 계
획이다. 또 지역별 이장단 회의에 참여해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안전모 등 예방 물품도 지원할 예정
이다.

심우섭 본부장은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통장과의 협업을 통해 고위험 작업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붕 작업과 밀폐공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
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 parksw@dtnews24.com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이통장연합회와 협업 '마을 안전 지킴이' 운영 논의

2026년 05월 01일 (금) 12:03:39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29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KOSHA, 본부장 심우섭)는 보령·서천·청양·부여·홍성 지역 이통장연합회 지회장들과 축산농가 및 지붕·태양광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및 질식재해 예방 방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 밀착형 가교로서 마을 내 축사 및 태양광 설비 개보수, 증축 작업 시 위험요인을 신속히 전달하고 안전수칙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공단은 축산농가 및 관련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별 이장단 회의에 참여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등 예방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우섭 본부장은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통장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붕 작업현장과 밀폐공간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지청 & 이통장연합회 간담회

✎ 이재인 기자 | ⓒ 승인 2026.04.30 10:09

- 지역 맞춤형 고용노동 협력 강화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 29일 보령고용센터에서 보령시 등 5개 시·군 이통장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고용노동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사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 29일 보령고용센터에서 보령시 등 5개 시·군 이통장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고용노동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용센터,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주요 업무와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하고, 청년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소규모 현장 산재 예방 등 지역 현안 대응 방안도 공유했다.

보령지청과 이통장연합회는 각 지회별 이장단과 연계해 청년·구직자 발굴, 산재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홍 지청장은 "산업안전, 청년 취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이
통장연합회와 상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정책 홍
보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민 기자

저작권자 © 체크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본부, 이통장연합회와 협업

한권수 기자 | 승인 2026.05.05 09:41

'마을 안전 지킴이' 운영 논의



▲ /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제공

[충청타임즈]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가 이통장연합회와 협업을 논의했다.

안전공단은 충남 보령·서천·청양·부여·홍성 지역 이통장연합회 지회장들과 축산농가 및 지붕·태양광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및 질식재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이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 밀착형 가교로서 마을 내 축사 및 태양광 설비 개 보수, 증축 작업 시 위험요인을 전달하고 안전수칙을 확산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공단은 축산농가 및 관련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와 컨설팅을 하고, 지역별 이장단 회의에 참여해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모 등 예방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우섭 안전공단 대전세종본부장은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이통장과의 협업을 통해 지붕 작업현장과 밀폐공간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맞춤형 고용노동행정 연계 활성화

☞ 신광수 기자 | Ⓞ 승인 2026.05.05 14:14

보령시 등 5개 시·군지역 이통장연합회 지회장과의 간담회 통한 협력 강화



5개 시·군지역 이통장연합회와 간담회 후 기념촬영 모습.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보령고용센터에서 지난달 29일 관내 보령시 등 5개 시·군지역 이통장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가교인 관내 이통장연합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노동행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고용센터,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했다.

보령고용센터는 자체적으로 지역 미취업 청년구직자를 발굴해 구인기업과 연결하는 '청년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

리도약장려금'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협력과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을 지원하고, 노동기준조사.감독과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감독을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산재예방감독과는 지역의 지붕·태양광 공사, 축산농가 등 소규모 현장의 추락·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이통장연합회는 각 지회별 이장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청년·일반구직자 발굴, 소규모 현장의 산재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주홍 보령지청장은"최근 산업안전, 청년 취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등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행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 이통장연합회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앞으로 지역맞춤형 고용노동정책 사업 홍보 및 서비스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관내 이통장연합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광수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보령시 등 5개 시·군지역 이통장연합회 지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협력 강화

✎ 이승호 기자 | Ⓞ 승인 2026.05.04 08:55

"지역맞춤형 고용노동행정 연계 활성화를 위해 이통장연합회와 손을 맞잡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보령고용센터에서 29일 관내 보령시 등 5개 시·군지역 이통장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가교인 관내 이통장연합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노동행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고용센터,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보령고용센터는 자체적으로 지역 미취업 청년구직자를 발굴하여 구인기업과 연결하는 '청년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협력과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을 지원하고, 노동기준조사.감독과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감독을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산재예방감독과는 지역의 지붕·태양광 공사, 축산농가 등 소규모 현장의 추락·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이통장연합회는 각 지회별 이장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청년·일반구직자 발굴, 소규모 현장의 산재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김주홍 보령지청장은 "최근 산업안전, 청년 취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등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행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 이통장연합회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지역맞춤형 고용노동정책 사업 홍보 및 서비스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관내 이통장연합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ceobgnews@naver.com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맞춤형 고용노동행정 연계 활성화를 위해 이통장연합회와 손을 맞잡다.

✎ 이성필 기자 | ⓒ 승인 2026.04.30 17:04

보령시 등 5개 시·군지역 이통장연합회 지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보령고용센터에서 29일 관내 보령시 등 5개 시·군지역 이통장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가교인 관내 이통장연합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노동행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고용센터,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보령고용센터는 자체적으로 지역 미취업 청년구직자를 발굴하여 구인기업과 연결하는 '청년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협력과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을 지원하고, 노동기준조사.감독과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감독을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산재예방감독과는 지역의 지붕·태양광 공사, 축산농가 등 소규모 현장의 추락·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이통장연합회는 각 지회별 이장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청년·일반구직자 발굴, 소규모 현장의 산재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김주홍 보령지청장은 "최근 산업안전, 청년 취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등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행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 이통장연합회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지역맞춤형 고용노동정책 사업 홍보 및 서비스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관내 이통장연합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필 기자 sip6318@hanmail.net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맞춤형 고용노동행정 연계 활성화 위해 이통장연합회와 손을 맞잡다.

☎ 양창용 | 🕒 승인 2026.04.30 15:51

보령시 등 5개 시·군지역 이통장연합회 지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보령고용센터에서 29일 관내 보령시 등 5개 시·군지역 이통장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가교인 관내 이통장연합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노동행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고용센터,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보령고용센터는 자체적으로 지역 미취업 청년구직자를 발굴하여 구인기업과 연결하는 '청년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협력과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을 지원하고, 노동기준조사.감독과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감독을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산재예방감독과는 지역의 지붕·태양광 공사, 축산농가 등 소규모 현장의 추락.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이통장연합회는 각 지회별 이장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청년·일반구직자 발굴, 소규모 현장의 산재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김주홍 보령지청장은 "최근 산업안전, 청년 취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등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행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 이통장연합회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지역맞춤형 고용노동정책 사업 홍보 및 서비스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관내 이통장연합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령시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창용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이통장연합회와 협력 강화

2026.04.30 16:34 입력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이통장연합회 간담회 기념촬영 모습.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29일 보령고용센터에서 보령시 등 관내 5개 시·군 이통장연합회 지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맞춤형 고용노동행정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주요 고용정책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임금체불 감독 강화, 산업재해 예방 대책 등이 공유됐다.

보령지청과 이통장연합회는 앞으로 지역 구직자 발굴과 산재 예방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주홍 지청장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 맞춤형 고용노동행정 연계 활성화를 위해 '이·통장연합회와 손을 맞잡다'

보령시 등 5개 시·군 지역 이·통장연합회 지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협력 강화

기사입력시간 : 2026/04/30 [11:32:00]

대전신문



▲ 이·통장연합회 간담회 장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지난 29일 보령고용센터에서 관내 보령시 등 5개 시·군 지역 이·통장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가교인 관내 이·통장연합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노동행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고용센터,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했다.

보령고용센터는 자체적으로 지역 미취업 청년구직자를 발굴해 구인기업과 연결하는 '청년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통장연합회 간담회 장면

지역협력과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을 지원하고, 노동기준조사·감독과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감독을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산재예방감독과는 지역의 지붕·태양광 공사, 축산농가 등 소규모 현장의 추락·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이·통장연합회는 각 지회별 이장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청년·일반구직자 발굴, 소규모 현장의 산재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김주홍 보령지청장은 “최근 산업안전, 청년 취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등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행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 이·통장연합회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노동정책 사업 홍보 및 서비스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관내 이·통장연합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